어둠 속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창밖은 어스레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에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무기력한 삶이 떠올랐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미안할 뿐, 고작 해야 이 정도의 삶인가 하는 허무함이 퍼져나갔다.

때때로 불쑥 떠오르는 꿈과 이상은 이내 현실에 묻혀버렸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인 인생에, 미래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희망이라고는 그 잔해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바라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의 전화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근한 목소리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야 이번에 대박 나겠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투자 대상 정도로만 들렸다.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낯선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블록체인 기술, P2P 거래, 한정된 발행량 등 생소한 말들에서 어렴풋이 무언가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맥주캔을 열심히 기울이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게 바로 기회일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트렌드일 뿐인 걸까? 어둠 속에 앉아 외로운 생각만 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이렇게라도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새로웠다.

다음 날부터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찾아나갔다. 블록체인 기술의 작동원리와 분산화 철학을 알게 될수록 나는 점점 매료되어갔다.

'저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니, 누가 생각해냈을까?'

비트코인이 중개인 없이도 peer-to-peer로 거래되고, 한정된 총 발행량 덕에 가치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지극히 단순한 원리임에도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혁명적인 것이었다. 차츰 나

를 사로잡던 매력이 점점 커져만 갔다.

이내 책과 인터넷으로는 부족해졌다. 유튜브에서 전문가 강의를 찾아보고, 지식공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교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집 근처 암호화폐 동아리까지 가입해 모임에 참가하곤 했다. 낮과 밤이 바뀌어가며 비트코인 공부에만 전력했다.

'이게 바로 나의 기회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확신에 차있었다. 투자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 어떤 도전보다 가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중년의 나이에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났다. 그렇게 얼마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결심했다. 첫 투자를 실행에 옮기기로 말이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다. 서서히 규모를 키워가며 손익 관리를 배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트 분석 능력과 전략도 늘어났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가차없이 덮치는 큰 폭의 하락장 때문에 나는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했다.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트만 바라보며 고민하기도 했다.

'과연 이게 기회였을까, 아니면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차트 숫자들이 깜박이는 속에서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서있는 것만 같았다.

그럴 때면 기억해내려 애썼다. 지금까지 공부하며 배웠던 비트코인의 철학과 기술을 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기회란 건 위험을 수반하는 법이야. 그저 열심히 버텨내고 기다려야 할 뿐이지.'

다시금 힘을 내어 전문가 견해와 시장 분석을 섭렵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버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기도 했다.

그렇게 긴 순간의 인내와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내야 했다. 그야말로 먼 바다를 항해하는 낡은 배와도 같았다. 이리치고 저리치다 지쳐 잠깐 멈추어 서기도 했지만, 꿋꿋이 버텨내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것이 찾아왔다. 2024년 3월, 어스름한 새벽 무렵이었다. 지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바라보는데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례 없이 급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며 멍했다. 이게 정말 실화인가, 생시가 꿈인가 했다. 하지만 터져나오는 갖가지 호재 소식들이 현실임을 실감나게 해줬다. 마치 긴 밤을 지새운 후 찾아온 새벽놀 같았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기회가 찾아왔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열정의 물결이었다. 내가 바라던 기회의 찰나, 너무도 간절히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재빨리 행동에 옮겼다. 전략을 바꾸어 적극적 매수 행렬에 나섰다.

FOMO 현상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상승 기회를 잡는 게 급선무였다.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거품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기에 나는 과감할 수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갔다. 상상만 해도 전율이 일었다. 이렇게 되면 빚도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여유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꿰꿰한 기쁨도 있었다. 지금껏 그토록 허무하기만 했던 내 삶이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다각화와 재투자를 통해 더 큰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했다. 나는 altcoin과 NFT, 메타버스 분야에도 과감히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실패 위험도 있었지만,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아울러 chatGPT 등 AI 기술을 활용해 비트코인 자동 거래 솔루션 개발에도 착수했다. Gpters 커뮤니티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발전해갔다. 서서히 커뮤니티의 힘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부지런히 달렸다. 잠시라도 게으름 피우면 다시금 그 무기력함으로 실낱같은 기회마저 놓치게 될까 두려웠다. 어둠을 뚫고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미래를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나를 달리게 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한때의 무기력한 회사원이었던 내가 이제는 투자와 창업으로 큰 부를 이뤘다. 이른바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극적인 변화였다.

비트코인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내 안의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그 기회가 있었기에 중년의 절망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긴 여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만은 않았다. 암흑 같은 불확실성의 늪에 휩싸여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꿈을 놓지 않고 버텼다.

푹푹 쏟아지는 차가운 비 속에서도, 구름이 걷힌 뒤에는 반드시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꿋꿋이 인내와 노력의 여정을 이어갔다.

어둠 속에서 맥주캔을 손에 쥐고 있노라면, 이제는 내가 바로 그 뜨거운 아침 해 자체가 된 것 같다. 나는 한동안 유리잔에 넘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기회를 꽉 붙잡은 손에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